

식당 영업제한 해제·유흥시설은 밤10시까지

오늘부터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직계가족은 가능

오늘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완화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등에 적용됐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되며, 클럽 등 유흥시설 운영도 오후 10시까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 조정 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침은 15일 0시부터 오는 28일 자정까지 2주간 유지된다.

이는 정부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설 연휴가 끝나는 15일부터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우선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됐다.

그동안 문을 닫아야 했던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클럽·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도 해제된다. 다만 운영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되며 ▷클럽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춤추기 금지 ▷가장시 아크릴판 설치, 1인 노래만 가능 ▷테이블·룸간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목욕탕은 발한실·수면실 운영 제한을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를 조

건으로 매점·식당·프로그램 운영은 허용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하루 20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음식물 제공을 허용한다.

실외 골프장은 거리두기를 지키며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지만, 샤워실 운영은 금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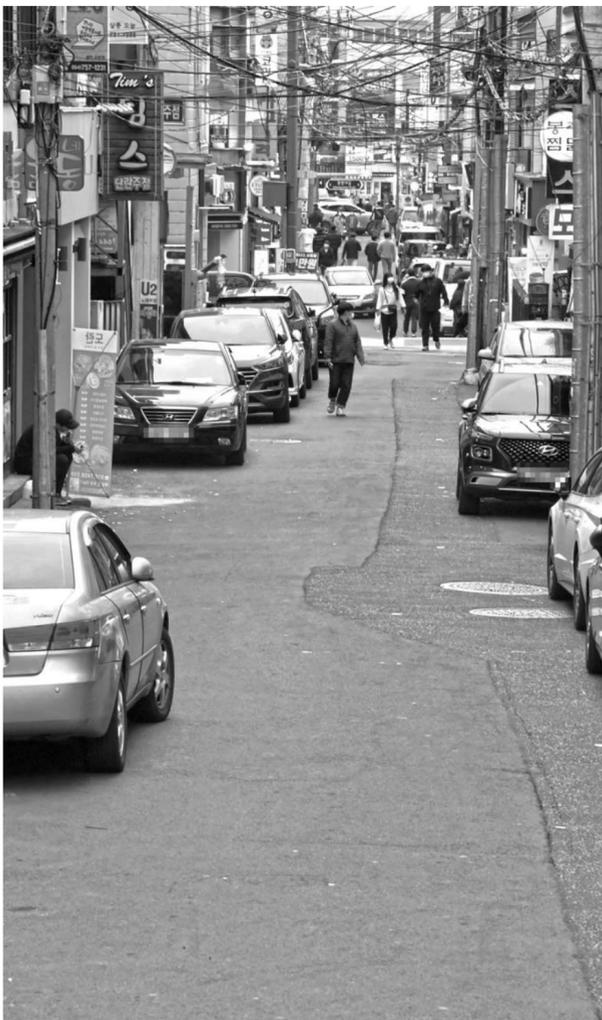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되나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다만 정부와 제주도는 코로나19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거주지와 관계 없이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긴장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도지사는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설날에도 한산한 대학로 골목. 설날인 12일 오후 제주시형 인근 대학로가 사회적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성산포항 항만 건설공사 완공

국비 168억 투입 물양장·여객부두 등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산포항 어업인들의 숙원 사업인 어선 접안시설·친수공원 등 항만건설 공사가 2년여 만에 완공됐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국비 168억원이 투입돼 지난 2018년 착공, 올해 1월 28일 준공됐다.

주요 시설은 어선 물양장 320m, 여객부두 20m, 친수공원 3725㎡, 진입도로 370m, 주차장 1560㎡ 등이다.

그간 성산포항은 성어기 시 재적 어선과 외래어선의 이용 증가로 어선 계류장소 부족 등으로 어획물 처리작업에 차질을 빚어 왔다.

도는 이번 공사로 어선 50여척 이상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물양장을 축조했다. 또 상항구 동쪽에는 대형 여객선(1만4000t급)이 접안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주차장 80면을 추가로 확보했다.

아울러 주차장 주변에 친수광장을 조성하고 교통량 분산을 위한 진입도로를 개설했다.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10일 성산포항을 방문해 성산포항 어선 접안시설을 점검하고, 접안시설 용량 및 이후 시설확충 계획 등을 확인했다.

강다혜기자

기초생활보장 지원 적정성 확인 조사

제주시, 1만1000여가구 대상 소득·재산 변동 내역 등 조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정기 확인조사가 이뤄진다.

제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000여 가구에 대해 지원의 적정성 여부 및 소득·재산 변동,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달 말까지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혼인 변동사항, 소득·재산 변동내역, 주거사항 변동, 취학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급자격에 따른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이뤄진다. 제주시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해당가가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근로활동 중인 가구원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신고서(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소득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부동산매매나 보험

금 수령 등 재산증거 및 감소 변동사항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소득신고 대상이며, 대학생인 경우 재학증명서 및 휴학증명서, 입영통지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확인조사 결과 소득 변동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 관리에 반영하여 수급자격 및 지원의 적정성 관리를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급여 변동으로 인한 보장종지 예정자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와 충분한 소명기회 제공 및 필요 시 현장조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반드시 보장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권리구제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확인조사 대상자들이 비용환수나 자격종지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서귀포 해양레저관광 거점화 사업 본격화

문섬 일원·항만 부지에 해양레저체험센터 설치 스킨스쿠버·서핑 체험교육장과 카페·전시장도

서귀포시 일대에 스킨스쿠버와 서핑 교육 등이 가능한 해양레저체험센터 설립 등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 설계공모를 통해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건축

부분 당선작을 선정해 설계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문섬 일원과 서귀포항만 부지에 총 사업비 400억원(국비 200억원·도비 200억원)을 투자해 2023년까지 해양레저체험

터와 해상다이빙시설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설계공모는 지난해 9월 전문가 심사위원을 별도 구성해 2단계에 걸쳐 심사했다.

최종 당선작을 제출한 건축사는 건축면적 2369.24㎡, 연면적 4508.61㎡, 지상 4층 규모의 해양레저체험센터를 설계한다.

센터 1층에는 상설전시장과 카페

등 편의시설, 2층에는 기획전시실, 3층에는 실내 서핑보드 체험교육장, 4층에는 스킨·스쿠버 다이빙 풀(30x15m)과 관람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올 상반기에는 파도를 막을 수 있는 파계제, 해상다이빙 체험장 등에 대한 해상 토목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이 다양한 해양레저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볼거리·즐거거리 등을 겸비한 해양관광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다혜기자

제주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리동네 삼촌돌보미 모집

제주시는 이달 26일까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를 모집한다.

위촉된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는 사전 교육을 받고 위기 가구를 방문한 뒤 안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험징후를 발견하면,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에

게 신속하게 제보하는 역할 등을 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원이나 집배원, 가스검침원 등 직업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와 이웃에 관심이 있고 봉사정신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업 지원자로 신청할 수 있다.

제주시 관내 '우리동네 삼촌돌보미'는 현재 총 238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윤형기자 yhlee@ihalla.com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유라조생 3년생 계약양묘

유라조생	1,2,3년생
감평	1,3,4년생
탱자요목	1년생
성하홍조생	1년생
성전온주	1년생
천해향	4,5년생
황금향	4,5년생

한림종묘

010-3690-2453

감귤 신품종 분양

2021년 봄 출하예정 요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무독), 천혜향, 황금향, 윈터프린스, 제라톤(레몬), 미니향, 한라봉, 탐나는봉, 사라향, 아마나스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2년생 이상 100% 이상익한 요목임)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 위치)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010-2691-1883

모든품종 감귤(묘)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유라 (1~5년생)

- 황금향 • 레드향
- 천혜향 • 하례조생
- 미니향·레몬
- 탐라향 5년생(화분)
- 궁천 • 일남일호

※ 신품종 다수보유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거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열티 등 일본격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판매확인서 발급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많은 문의 바랍니다. 단, 일본의 보호신청 이후에 생산한 1,2년생 요목을 판매하거나 구입 시는, 바로 법에 걸려짐.

·카라향	1, 4년생	·고림조생	3년생
·유라조생	1년생	·하례조생	2,3년생
·레드향(무독)	1,2,3년생	·한라봉	5,6년생
·천혜향(무독)	2,3,4년생	·하갈	2,3,7,8년생
·궁천	1,2,3,5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